



올 설 연휴 14만여명 제주에 온다는데...

최근 관광객 1일 입도 기준 20~30%가량 늘어난 규모 관광업계 "경영에 숨통 기대... 방역에 최선 다할 것" 도 방역당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목소리에 '초긴장'

설 연휴 기간 14만여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주 현실을 반영한 방역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약 14만3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1만1848명보다 32.5%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일주일간 일일 제주관광객 2만명 수준 보다는 20~3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도관광협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항공기 평균 탑승률은 69%대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 국내선 제주 도착 항공편은 1196편으로 전년(1094편) 대비 102편 늘었다. 선박은 37편으로 전년(38편)보다

1편 줄었지만, 공급좌석은 3만3526석으로 전년(3만2116석)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설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예약과 관련해 문의전화와 이어지고 있는 등 설 연휴 기간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엄소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도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 연휴 기간 관광객이 몰려 코로나19 사태가 자칫 재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대중교통 특별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설 명절 이후 택시·렌터카 운수종사자의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주를 방문한 의심 증상자들은 모두 제주국제공항내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2년 전 제주도청 기습시위는 불법" 지법, 제2공항 반대 시위자 7명에 벌금형 선고

"출입 방법 비정상적 신고 장소도 아니다"

2년 전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도청 중앙현관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거나 차양시설 위로 올라간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7)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 5명은 2019년 2월 7일 오전 4시6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현관 차양시설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 등 2명은 같은날 오전 11시8분부터 낮 12시5분까지 도청 중앙현관을 점거해 제2공항 반대 피켓팅 시위를 벌이고, 제주도 총무팀장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당

초 이들 7명은 약식기소로 벌금을 맞은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목적으로 차양 위에 올라갔으며, 실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내려왔다. 기자회견 외에 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중앙현관 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더러 시위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민원인을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장욱 판사는 "차양시설은 아무나 출입하는 곳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출입한 방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켓팅위도 사전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2019년 1월 7일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공무원을 밀어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송은범기자

불법어업 특별 단속 실시

남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과 수산물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금지구역·금어기 위반,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초점을 둔다.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수산시장·횃집을 대상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 및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를 중점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물 소비자 및 유통업자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수산물 포획 금지 기간·채장 홍보물도 배부한다. 송은범기자



산더미처럼 쌓인 갯생이모자반 청정제주바다의 골치거리인 갯생이모자반이 최근 들어 제주 바다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제주 시 이호태우해수욕장에 수거된 갯생이모자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자국민 협박해 돈 뺏은 5명 첫 재판

"신고한다"며 금품 갈취 2명은 제주에 불법체류

제주에서 경찰 신고를 빌미로 자국민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중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중국인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5일 제주에서 선불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칩을 판매하는 중국인 B씨의 거주지에 쳐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B씨가

소유하고 있는 206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잠복, B씨의 집에서 나오는 불법체류자 2명을 협박해 문을 열도록 했다. 기소된 5명 중 A씨를 포함한 2명은 지난 2018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난해까지 제주에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두 번째 재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벌일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도민 2월중 코로나 백신접종 힘들다

도, 정부 물량확보·공급시기 예의주시... 11월 종료 차질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오는 11월 말까지 도내 인구(67만4635명)의 70% 수준인 47만2245명(외국인 미포함)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다만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약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공급시기와 공급 물량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가장 처음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백신

6만명분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백신이 언제 제주에 도착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실행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를 필요로 하지만 제주에는 설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백

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후 언제 지방에 몇 사람분을 보내 주겠다고 해야 실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며 "백신물량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물량에 따라 접종 대상을 줄이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민·관협의체와 이상반응 신속 대응팀을 꾸려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고 감염 취약 시설 등을 통한 전파 차단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 고대리기자

그랜드 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보청기부문수상
전통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HIT BRAND
히트브랜드대상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배움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와이덱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썩음병, 균해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효과

핵심 장점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유통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9종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Y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